

‘10조 규모’ 이차전지도 전남광주로…첨단산업 ‘날개’

광양만권 6개 산단 645만평 특화단지 지정
화순바이오 이어두번째…사업비 5천303억
원료·소재 국가거점…기업 투자 가속도
예타 특례·국비 지원…배터리 공급망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화순 바이오에 이어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까지 품으며 미래 첨단 산업 기반을 한층 넓혔다. 특히 국내에서 취약했던 이차전지 기초원료·핵심소재 공급망의 국가 거점으로 인정받으면서 광양만권에 계획된 1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30일 “광양만권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특화단지는 광양만권 6개 산업단지, 645만평(2천132만㎡) 규모다. 울촌1일반산업단과 세풍일반산업단, 해룡일반산업단, 황금일반산업단, 광양이신일반산업단, 광양국가산단 동호안이 포함됐다.

사업비는 국비 3천255억원, 지방비 1천740억원, 민자 308억원 등 총 5천303억원으로 이차전지 기초원료부터 핵심소재, 재활용까지 연계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광양만권은 리튬·니켈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의 정·제련과 양극재·흑연 등 핵심소재 생산, 사용후배터리 재활용까지 연결되는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 포스코 계열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원료·소재 생산시설도 집중돼 있다.

특히 해외에서 확보한 광물 원료를 들여와 정제·가공한 뒤 이차전지 소재로 생산하는 기반을 갖춘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특별시는 국내에서 이차전지 기초원료를 직접 가공해 소재로 생산하는 기반을 갖춘 곳은 광양만권이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광양에서 생산되는 이차전지 소재는 연

간 8만3천t 규모로 전기차 약 100만대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기업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 그룹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4조7천501억원이 투자됐으며 향후 10년간 5조3천724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기존 투자와 예정된 투자를 합하면 10조원 규모다.

이번 지정은 국내 이차전지 원료·소재 공급망을 보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3년 지정된 청주·포항·울산·군산 등 기존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셀·소재 생산 중심이었다면, 광양만권은 기초원료 정·제련과 핵심소재 생산을 중심으로 공급망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는다.

특별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정부 육성계획에 지역 핵심사업을 반영하고 세풍산단 열폐수 처리시설을 비롯한 용수·폐수·전력·접근도로 등 기업 투자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과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화단지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민원 신속처리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장비·부품과 배터리 셀, 에너지저장장치(ESS), 재활용 분야 기업 유치에 힘쓰고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체제도 강화한다.

앞서 특별시는 지난 2월 광주·전남권 10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차전지 인재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전남대학교와 순천대학교 등 지역 대학의 관련 교육과 기업 수요를 연계해 특화단지에 필요한 전문·실무인력을 공급한다.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2024년 화순바이오 특화단지에 이어 특별시에서 두 번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다.

민형배 시장은 “이번 지정으로 광양만권은 대한민국 배터리 공급망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거점이 됐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과 인재가 모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광양만권을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위치도.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가 30일 서울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과 김민석 당대표 등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통합 첫 예산…국비 5천억 이상 추가 확보 총력

전남광주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후 첫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비 5천억원 이상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기반 확충과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 성과 창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과 송형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장, 안도걸 전남광주특별시장 위원장,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철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특별시 지역 사업비 13조9천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통합 전 전남과 광주의 지난해 국비 확보액을 합한 13조804억원보다 63% 늘어난 규모다.

미래대응기금 9천억원을 포함하면 전년 대비

정부안 13조9천억에 5% 증액 반영 요청

반도체·AI·SOC 등 신성장동력 20개 사업

関시장 “시민 체감…빠진 사업 채워달라”

金대표 “메가성장 모범…예산 뒷받침”

증가율은 13.1%이며,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5조원은 별도로 지원된다.

특별시는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을 유지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SOC 현안에 3천500억원 이상, 지역 균형발전과 민생·안전에 1천500억원 이상 등 모두 5천억원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메가 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132억원, 파일럿형 국산 NPU 실증센터 구축비 140억원, 국가AI집적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비 1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고전력 반도체 모듈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시험장비 구입비 50억원과 AI 광반도체 첨단패키징 사업지원센터 장비 구입비

등 70억원도 요청 대상이다.

또 마른길 집적화단지 시범조성 실시설계비 15억원, 자율차 안전성관리 및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설계·장비구입비 80억원, 우주발사체 지·산·학·연 연합캠퍼스 실시설계비 20억원 등을 건의했다.

특별시는 이와 함께 김산읍진흥구역 지정 200억원, 미래 국가대표 선수촌 건립 2천535억원, 스포츠·공영 복합돛구장 건설(미정), 수산유전 자원 AI센터 구축 100억원, 세월호 문화공간 조성 1천17억원 등 10개 사업의 국비 반영도 요청했다.

민형배 시장은 “실제 통합을 했는데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역 성장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 보여드려야 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다른 곳은 보통 10개 정도씩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남·광주 두 광역단체의 몫을 생각해서 그보다 두 배쯤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의 5% 정도를 추가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특별시를 16분의 1이 아니라 17분의 2로 봐주시면 좋겠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것은 지키고 빠진 핵심 사업은 국회에서 꼭 채워달라”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변은진 기자

제18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주최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주관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

점수마감
10.14
도착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인회 점수 인정

공모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 - 제한 없음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출품료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1인당 30,000원 (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미발표 작품으로 미품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작품규격 컬러, 흑백 11" x 14" (정장용외)
접수처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영로 196빌딩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연락처 062-234-2323
출품수 4점 이내
작품 뒷면에 명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반·학생)기재
접수기간 2026년 10월 14일(수) 도착분
심사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11시
심사장소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 (다목적실) 예정
심사별표 2026년 10월 22일(목) 예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및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http://www.kjphoto.or.kr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및 지상(예정) http://www.kjdaily.com

시상일시 2026년 11월 11일(수) 오후 2시(예정)
시상장소 빛고을시민회관 4층 다목적실(예정)/광주매일신문 본사

시상내역

1. 일반 공모 부문
· 대상(1점) 광주매일신문 시상 상장 및 부상 200만원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부상 50만원
· 입선(출품수의 20%이내) 입상작 포함,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 최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시상 상장 및 부상 100만원
· 특선(입선10%이내) 광주매일신문 시상 상장
2. 특별(학생) 부문
· 대상(1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상장 및 메달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시상 상장 및 메달
· 특선(5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메달
· 입선(50점 내외)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3. 초대작가상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패
*초대작가: 합선 15점 이상 인자(대상 6점, 최우수상 5점, 우수상 4점, 입선2점)는 본 사진대전 초대작가후 추대한다.

작품반출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단, 광주지역 출품자는 동우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함)

기타사항

특전 초대작가 제도 운영 (본 대전에서 총 접수 15점 이상 취득한 자)
본 대전 입상자는 광주매일신문 사진동우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단, 입상경력 2회 이상)
·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에선 수상자에 한하여 도서출판,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상 입선작의 원본파일은 5일 이내에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 brcm@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취소됨)
· 수상작과 관련한 초상권 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을 지야 함.
· 초대작가 작품 e-mail 제출 (cjkgang2323@naver.com), 출품시 주소, 성명, 명제, 연락처 기재요망